

민사소송법

2015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甲은 乙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질문은 별도의 것임) (총 40점)

(1) 원고의 대여금채권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경우, 다툼이 있는 사실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

1)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빌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빌렸다고 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10점)

2)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원고로부터 부양료로 받았다.” (10점)

(2) 위 소송계속 중 원고 甲의 채권자가 甲을 대위하여 피고 乙을 상대로 위에서 말한 2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를 별도로 제기한 경우 후소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제 2 문. 甲은 금목걸이 등 세공품을 제작하여 乙에게 납품하고, 乙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왔다. 甲은 乙을 상대로 납품대금 중 미납된 잔금 1억 원(소구채권)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납품대금은 이미 전액 지급하였고, 가령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금 세공품 제작을 위한 설비를 갖추 때 乙로부터 돈 1억 원(대여금채권)을 빌려갔으므로 이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음 질문은 별도의 것임) (총 35점)

(1) 乙의 위 상계항변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이미 가지고 있던 별도의 물품대금채권 1억 원으로 다시 상계한다는 의사를 변론기일에서 표시하였다. 심리결과 甲의 乙에 대한 미납대금채권(소구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乙의 상계항변과 甲의 상계재항변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2) 제1심 법원은 乙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가? (15점)

제 3 문.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甲에게 있다는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심리 중 X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丙이 甲과 乙을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심리결과 법원은 이 토지의 소유권이 丙에게 있다고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乙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甲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위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음을 인정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다고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25점)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



인사혁신처

민사소송법

1 / 1